



#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애매한 결과도 수용하자

애매하다는 것이 때로는 상상력에 대한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발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애매한 것이 궁금증을 유발시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원리인가?’, ‘이것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을 때 갖게 되는 의문들이다.

특히, 이런 의문들이 쉽게 풀리지 않고 미궁에 빠질 때는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듯이 애매모호한 답을 찾을 때는 한가지 방법이 있다. 어불성설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사물을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의 반은 얼마냐?” 했을 때, 그 정답은 분명 반이다. 하지만 만일 이 질문이 수학적 논리가 아닌 발명적 질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답은 0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으며, 시간이나 공간처럼 여러가지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에 벽돌을 문받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면, 포크와 스푼을 초인종 대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



다면, 나뭇잎을 휴지 대신 사용한 적이 있다면, 혹은 연필 끝으로 구멍을 뚫어 본 적이 있다면, 그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리송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발명가가 되려면 애매한 결과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가지 결과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결과를 찾는 것이면 된다.

## 때로는 비전문 분야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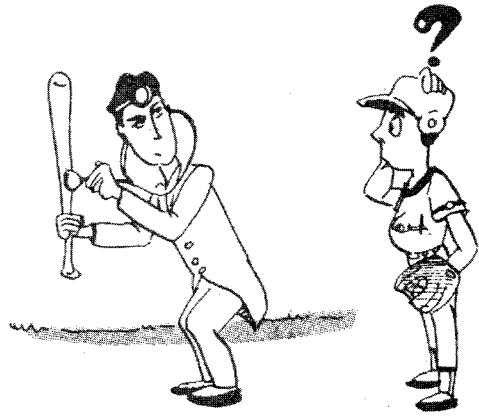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떠한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에는 구원 투수가 기용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선발 투수가 최후까지 던지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화된 구원 투수가 몇 명씩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 경향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짙어가고 있다.

하지만 발명적 생각에 있어 전문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다른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예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너무 좁은 범위에 한정시켜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는 독자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론이 있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는 가끔 전문 분야라는 경계를 뛰어 넘어 다른 분야에 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문을 찾아 나설 때 얻



어진다.

예술이나 발명·과학·사업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중요한 진보는 아이디어의 조화를 통해 얻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치에 따르면, 어떤 분야를 참체케하는 원인은 외부의 아이디어를 배제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실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나서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때로는 비전문 분야로도 눈을 돌려 아이디어를 보다 과감하게 찾아나서라는 것이다.

발특9710

## '97 아시아변리사회 추계 세미나 안내

- ▶ 일 시 : 1997. 11. 28(금) 09:00~17:30
- ▶ 장 소 : 서울 상공회의소 강당
- ▶ 주요내용
  -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실무상 예상되는 주요문제점 및 대책
  - 특허법 및 상표법개정에 따른 주요실무상의 문제점과 대책
  - 중국 및 홍콩에서의 특허·상표보호를 위한 한국기업의 대응 전략
- ▶ 연 락 처 :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547-6249)